

천재도 바보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간의 존엄성

19 48년 12월 10일의 제3회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유명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인간존엄성의 신념은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이며 교육의 핵심개념이다. 인간 개개인은 누구나 다른 그 어떤 것의 수단이 되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존엄성의 심리적 기초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입각한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믿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식을 자기 이상으로 소중하다고 말하며 믿고 있는 어머니도 가족사진을 찍으면 우선 자기 얼굴을 먼저 보고 다음에 자식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잘 나타났으면 흐뭇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불교에서는 개개인의 절대적 가치의 존중을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바보나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 천재나 정상인이나 부자나 잘 생긴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다.

자녀가 전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었나 관심갖고

칭찬하면 발전한다

기대수준까지 끌어올리려

야단치고 남과 비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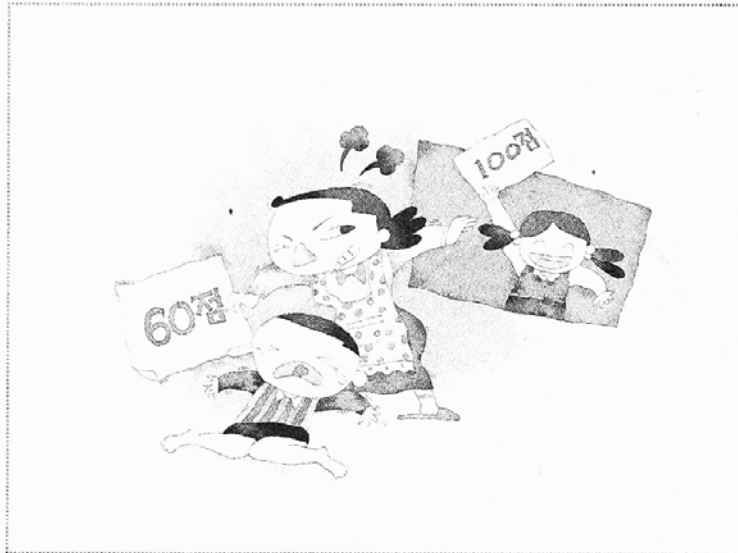
학습동기 약화·성격 이상도

바보, 장애인, 가난한 사람, 못생긴 사람, 누구라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지구상에 있는 58억 인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라고 믿고 있다. 즉 부처님도, 천재도, 바보도 모두 똑같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핵심개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교육현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방법에서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 교과목 성적을 평가하는 유형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두 가지가 있다. 절대평가는 준거지향평가(準據指向評價)라고도 하며 개인이 어떤 준거에 비추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밝히는 평가이다. 즉 설정된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그러기 때문에 학급 인원 전체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였으면 전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2>



원에게 만점을 준다. 반대로 설정된 목표의 최저 기준에 전원이 미달되었으면 모두 낙제점을 준다. 오늘날 학교에서의 교과성적의 평가는 이와 같은 절대평가이다. 다른 아동과의 경쟁이 아니라 목표 도달 정도의 평가이다.

상대평가는 규준지향평가(規準指向評價)라고도 하며 어떤 규준에 비추어 본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는 평가방법이다. 석차를 매기는 방식이 상대평가이며 고등학교가 대학입학전형 자료로 제출하는 내신성적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평가유형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평가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가방법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과 같은 인간존엄성의 사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절대평가의 경우를 보면 선세(先世)의 업(業)에 의하여 어떤 부분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결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상대평가의 경우는 문자 그대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인 절대성, 초월성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철저한 경쟁을 유도한다.

이렇게 볼 때 현행의 교과성적 평가 방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한 개인 개인을 불성이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잘못된 평가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제기 되고 있는 평가의 유형이 자기지향평가(自己指向評價)이다. 자기지향평가는 개인의 전후한의 발전의 정도를 비

상대-절대평가 부처님가르침에 상반 자기지향평가 '노력의 가치' 중요시

교하는 평가방법이다. 즉 향상(向上)의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보고자 하는 평가방법이다.

이 평가방법에 의하게 되면 높이 있는 목표를 쳐다보며 한숨 쉴 필요도 없으며 다른 사람을 의식한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 스스로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뿐이다. 만일 경쟁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과거에 비하여 어느 정도 향상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향상일로(向上一路)의 길을 걷게 한다.

나는 글씨가 약발이다. 내가 보통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습자라고 하여 서에 시간이 있었다. 그때의 평점은 갑, 을, 병(甲, 乙, 丙)이었는데 나의 성적은 항상 병으로 정해져 있었다. 을이나 맞을까 하고 열심히 써내도 병이며, 화가 나서 막 써서 내도 병이다. 왜냐하면 병이 최하점수이기 때문이다. 나의 서예작품을 설정된 목표에 비추어 보면 이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병이 더(절대평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도 형편없기 때문에 병이 된 것이다(상대평가). 그래서 자포자기하여 막 써 버린 것이 오늘과 같은 약발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지를 않고 나의 글씨 두 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서 "이 글씨는

김군이 쓴 글씨인데 어느 모로 보나 잘 쓴 글씨는 아니다. 그런데 원편의 것은 3개월 전에 쓴 글씨이고 오른편 것은 최근의 글씨인데 이 두 장을 비교해 보면 그간에 얼마나 향상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 김군이 이렇게 향상하다 보면 장차 서예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라는 식의 자기지향평가를 해주었다면 오늘의 나의 글씨가 이렇게 약발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지향평가의 원리는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도 적용시킬 수 있으며 그 영역도 지적인 발달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 자녀의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있다.

우 선 문제되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절대평가와 같이 부모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에 자녀가 따라오지 못하면 야단치고 혼내주고 속상하게 생각하는 점이다. 즉 오늘날의 가정교육의 문제점은 부모의 기대수준이 너무 높은 데 있다. 그리고 이 기대수준에 미달한 자녀에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기대수준까지 끌어 올리려고 하는 잘못된 가정교육이 이루어 질 때 자녀의 학습동기는 더욱 약화되고 성격마저 뒤틀릴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는 부모에게 적대감을 가지는 수도 있다.

다음은 학교의 상대평가와 같이 자기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점이다. 얼마전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우리가 바라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

표한 바 있다.

다른 애와 비교하지 않는 부모가 우리가 바라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안타까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목표에 대한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려 하지만 주위의 눈총과 시선으로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했다가는 지방대도 못 가는 줄 알아. 응? 수학점수는 이게 뭐고 영어점수는 얼마 봤다더라. 그리고 큰 고모네 누구 좀 봐. 공부도 끝잘 하는거 말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는 정말 힘드니까 일찌감치 공짜애나 가!"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저희들은 무조건 남과 비교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올바른 가정교육은 학교의 자기지향평가와 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을 설정하지도 말고,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도 말며 오직 내 자녀가 전에 비하여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교육이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신념에 따른 교육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뒷바라지를 잘해야 일이 순순히 풀린다"고 한다. 말흘려 얻어낸 성과나 큰 어려움의 극복에는 반드시 뒷바라지한 배려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흔히 쓰이는 바라지란 짚에서 재를 옮길때 법주(法主)를 도와 경전을 독송하고 가람(歌談)을 부르는 스님으로부터 어원이 생겼다. 재는 돌이긴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시식(施式)의식이 하이라이트를 이루는데, 이때 바라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바라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음시식의 절차 일부와 바라지의 역할을 살펴보자.

관음시식이 시작되면 법주스님과 바라지스님이 법당에 들어서서 의식을 진행한다. 이때 법주스님은 요령을 지니고 바라지스님은 목탁을 지닌다. 시식이 시작되면 법주스님과 바라지스님이 함께 요령과 목탁을 치며 열불을 하

바라지

法主 도와 의식진행하는 스님 '옥바라지' '음식바라지'로 사용

며 재를 옮길것을 고한다. 이어 법주스님이 혼자서 요령을 흔들며 간절한 청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바라지스님과 법주스님이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등 삼보에 귀의하는 의식을 한다. 이어 바라지스님 혼자서 향화청의 가령을 통해 향과 꽃과 차를 올리는 의미를 법배행식의 가락을 통해 전하는 '바라지'를 한다. 이후 법주스님과 바라지스님이 번갈아 가며 진언을 한다.

이처럼 불교에서 비롯된 용어 바라지는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음식이나 옷을 대주고 뒤에서 일을 돌보아 주는 일, 또는 돌보아 주는 사람이라는 정도에서 사용하고 있다. '음식바라지'라든가 '옥(獄) 바라지'가 사용범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경우 생활 방편의 도움, 공지에 처한 사람 돕기 정도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용도로 바라지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바라지가 갖고 있는 본래의 역할은 지옥중생 또는 구천에 떠도는 고혼(孤魂)을 바라지하여 극락으로 왕생시키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바라지와 같이 우리 주변에 깊게 자리잡고 있는 의미의 불교용어를 찾아 음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서판 아담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안면기형·안과(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T) (0591)747-0106 F) (0591)747-0107

시·공·사·의·불·교·책·들

숨어있는 참나를 찾아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계한 지음/328쪽/값 6,500원

물음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도 이제 좀더 솔직하고 쉬운 언어로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 알기 쉽게 쓰고자 한 것이 오히려 현문우답이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를 알고자 하는 분자들의 진지한 물음 그 자체만으로도 저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기로 했습니다. 물음 하나하나를 자신에게 돌려 답을 구하다 보면 묻는 사람 자신이 어느덧 백팔고개를 넘어 부처님 도랑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수행을 쌓아 부처님 되십시오.

— 계한 스님이



불교 길라잡이

곽철한 지음/값 18,000원

미라클레의 十萬頌

가르마 천치하이 옮긴 영역본을
이정섭 풀이 옮김/ 값 18,000원

부처님의 아흔아홉 가지 말씀

이행기 지음/값 5,000원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익범 지음/값 6,000원

禪으로의 초대

스즈키 슌유 지음/최세민 옮김
/값 5,000원

갖고 싶은 경전 시공 불교경전

시공 불교경전은 현대적인 해석과 감각있는 편집으로
다들 새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형식의 경전입니다.

1 유아경

장순용 풀이 옮김/ 값 12,000원
한 편의 연극 같은 유아경의 설법

2 법화경 1·2

이연숙 풀이 옮김/ 값 각각 12,000원
영원한 부처님의 가르침

시공 불교경전은 계속됩니다.